

# 17년간 일요일 하늘 그리며 불안을 지우다

February 5, 2018 | 전지현 기자

## 17년간 일요일 하늘 그리며 불안을 지우다

### 뉴욕 작가 바이런 킴 개인전 ‘스카이’

뉴욕 브루클린에 사는 작가 바이런 킴(57)은 매주 일요일 화구(畵具)를 챙겨 집을 나선다. 다리나 빌딩 사이, 숲이나 공원에 자리를 잡고 하늘을 그린다. 지난 주와 같은 하늘은 없다. 비를 잔뜩 품은 먹구름 난층운, 수직으로 탑 형태를 이룬 적란운, 양털 모양의 권적운, 금방이라도 흩어져 사라질 것 같은 권운 등을 화폭에 담았다. 하늘 빛깔 역시 천변만화했다. 때면 다른 푸른색과 흰색, 회색 스펙트럼이 펼쳐졌다. 2001년부터 17년 동안 매주 일요일 하늘을 올려다보며 붓을 놀려 ‘일요일 회화’ 시리즈 874점을 완성했다.

최근 서울 삼청동 국제갤러리에서 만난 작가는 “그동안 본 하늘 색깔과 구름이 매번 확연하게 달랐다”고 말했다.

“내 고향 라호이아(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하늘은 뉴욕보다 공해가 덜한데도 회색이 강해요. 하늘은 항상 제 예상과 기대와 다른 모양새예요.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지상과 달리 천천히 변하는 하늘을 그리면서 불안을 지웁니다.”

예일요일에만 하늘을 그리까. 그는 “그림을 좋아하지만 취미로 즐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일요일을 선택해 작품 활동을 했다”며 “일상을 광활한 하늘이나 우주와 연결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모든 작품의 가로와 세로 길이가 35.5cm 정사각형이다. 그 이유에 대해 “우주와 연결된 하늘은 땅과 달리 동서남북 방



바이런 킴



‘일요일 회화’ 연작

35.5cm 정사각형 캔버스에 명상 후 바라본 하늘 담아 휘트니미술관 등에 작품 소장 ‘일요일 회화’ 연작 등 56점 전시

향이 거의 없다. 정사각형이 하늘답다”고 설명했다. 여행 중에도 작품을 이어나가기 위해 휴대하기 편한 35.5cm 캔버스를 선택했다고 한다.

하늘을 그린 후 그날의 소회를 적어 넣었다. 가족과 지인, 작가로서 고민 등 일

상을 담았다. 예일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뉴욕 스토브턴 회화조각학교에서 공부한 작가의 꿈은 원래 시인이었다. 2010년 10월 6일 그림에는 “혹시라는 이름의 개가 스튜디오에 와 있다. 굉장히 예의 바른 저 사악한 얼굴 표정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내가 뉴욕으로 돌아왔다는 게 실감난다. 아주 오랜만에 작업 생각에 신이 난다. 밤하늘에 관련된 작업 때문이다. 그리고 수학 공부도 하고 있다”고 썼다.

2013년 3월 31일 작품에서는 “하늘이 계속 변하고 있다. 팔레트는 아직 잠들어 있다. 엘라가 안경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오늘 아침 나가면서 더블린에서 머물렀던 두 곳을 둘러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모두가 함께한 즐거운 여행이었다. 덕분에 엘라의 입시로 인한 긴장이 느슨해진 것 같아 기쁘다. 오늘 예뻐서 스무살이 된다!”는 글로 가족 여행의 소회를 적었다. 이 작품들을 7년 만에 국내에서 여는 개인전 ‘스카이’(28일까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일요일 회화’ 48점에 ‘무제(…를 위하여)’ ‘도시의 밤(Layl Almadina)’ 8점 등을 걸었다. 전시장 벽에 하늘색 띠를 이룬 그의 작품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20여 년간 명상으로 불온한 생각을 걸러낸 작가의 정신이 담겨 있어 그럴지도 모른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오후에 1시간씩 매일 2시간 명상해요. 잡념을 정리해야 좀 더 진중하게 작품에 몰입할 수 있거든요. 제 성격이 부정적으로 치우쳐 있는데 명상을 꾸준히 하면 긍정으로 완화돼요.”

‘무제’와 ‘도시의 밤’ 대부분은 군청색이나 짙은 회색이다. 작가는 “밤하늘이라고 하면 대개 짙은 시골 밤을 생각하지만 도시의 밤에서는 나름 친밀감이 느껴진다”면서 “평소 여러 종류의 빛이 섞여 있는 도시 밤거리를 거닐며 내면을 살피거나 가까운 사람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작품은 뉴욕 휘트니미술관과 워싱턴 국립미술관 등에 소장돼 있으며 오는 9월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할 예정이다. (02) 735-8449 전지현 기자